

광주-대구 검찰 학교폭력 줄이기 ‘달빛동맹’

범사랑회 업무협약 체결

공동 교육 프로그램 개발

청소년 문화교류 추진도

영·호남을 대표하는 광주와 대구지역 검찰이 학교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달빛동맹’을 맺어 눈길을 끌고 있다.

달빛동맹은 ‘달구벌’과 ‘빛고을’의 머리글자를 딴 것으로, 양 도시는 다양한 영역에서 ‘달빛내륙철도’ 등 SOC 사업, ‘미래자동차’ 등 교류협력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지검은 “지난 3일 대구지검 회의실에서 대구지검·광주시·대구시·광주법사랑연합회·대구법사랑연합회와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업무협약에는 양부남 광주지검장과 노승권 대구지검장을 비롯한 윤장현 광주시장, 김연창 대구경제부시장, 한상원 광주법사랑연합회장, 이인중 대구·경북법사랑연합회장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자매결연을 맺은 양 지역 법사랑연합회 주도로 진행된 이번 업무협약체결은 최근 청소년 범죄가 흉포화·조직화되면서 소년법에 대한 선도활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광주의 경우 각종 학교폭력 예방대책에도, 일선 교육현장의 학교폭력 대책위원회 심의건수는 2013년 639건에서 2014년



“폭력 없는 학교 만들어요” 대구지검에서 지난 3일 열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협약서 서명 후 학교폭력 근절을 다짐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한상원 광주법사랑연합회장, 양부남 광주지검장, 윤장현 광주시장, 김연창 대구시경제부시장, 노승권 대구지검장, 이인중 대구법사랑연합회장. <광주시 제공>

664건, 2015년 694건, 2016년 834건으로 불과 3년 만에 30.5%(195건)나 늘었다. 특히 중학생의 경우 지난 2013년 389건에서 2016년 542건으로 153건이나 늘어나는 등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와 대구지역 기관들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청소년 보호·지도 프로그램 개발,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사업 교류, 지역 청소년 문화교류 활성화, 학교폭력 관련 협력 필요

성이 인정되는 사업 발굴·협조 등 정기적인 교류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또 학교폭력 근절을 목표로 상호간 축적한 폭력 예방 노하우를 공유하는 등 긴밀한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법사랑연합회는 광주지검 청소년상담실과 연계해 지원 활동에 나서고 있으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와 협력을 통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활성화 등도 추진하고 있다. 대구·경북 법사랑연합

회도 프리아구 삼성라이온즈 구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학교폭력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전개중이다.

양부남 광주지검장은 “대구지검, 광주시·대구시와 함께 양 지역 법사랑연합회의 성공적인 협력관계 및 선도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청소년들이 학교폭력 없는 국가에서 사회 구성원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 모든 중학교 내년부터 자유학년제

토론·체험 중심 교육...1학년 내신 고입전형 반영 안돼

내년부터 광주지역 전체 91개 중학교에서 시험 부담 없이 토론과 체험 학습 중심으로 진행되는 자유학년제가 실시된다. 전남은 교육인프라가 취약한 탓에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워 일부 학교에서만 운영한다.

자유학년제 참여 학생들의 경우 1학년 내신성적이 고교 입학전형에 반영되지 않는다.

교육부는 5일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중학교 자유학기제 확대·발전 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전국 중학교에서 한 학기로 운영해 온 자유학기가 내년에 광주 등 3210개 모든 중학교에서 운영된다. 시기는 1학년 1·2학기 또는 2학년 1학기 중 한 학기를 학교가 선택할 수 있다.

희망학교에 한해 자유학기를 1학년 1·2학기로 확대하는 자유학년제가 새로 도입된다. 내년의 경우 전국 중학교의 약 46%인 1470곳에서 실시된다.

516개 학교에서는 자유학기가 끝난 뒤

에도 그 취지를 살려 학생중심 수업 및 과정중심 평가 강화, 자유학기 활동을 5시간 이상 운영하는 연계학기를 운영하기로 했다.

자유학과 자유학년 기간에 교사는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재구성해 학생들의 활동을 중심으로 수업을 운영한다. 총괄식 지필평가는 하지 않으며, 개별 학생의 성장과 발달에 초점을 맞춘 방식으로 평가가 이뤄진다.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선택, 진로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등 4개 분야로 구성된다. 자유학기는 170시간 이상, 자유학년은 221시간 이상 관련 활동을 편성한 다.

자유학년제 도입에 따라 각 시·도 교육청은 자유학년에 참가하는 중1 학생들의 교과 내신성적을 고입전형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내년 3월 조기 예고할 예정이다.

1학년 한 학기 자유학기에만 참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고입전형에 1학년 교과내신을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시·도 교

육청별로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자유학년제 도입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데 이어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안에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유학기활동 수업을 통한 학생의 성장과 발달 내용을 2개 학기에 문장으로 입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도 개선한다. 자유학기를 이수한 모든 학생에 대해 교과별 이수 여부를 성취도란에 ‘P’로 입력하고 원점수 및 과목평균은 공란으로 남겨둔다.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해 각 학교에 평균 1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며, 자유학년제 실시 학교에는 2800만원이 지원된다.교육부는 희망학교를 중심으로 자유학년제를 확대할 계획이지만, 일률적으로 전면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자유학년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사교육 마케팅이 성행할이라는 전망도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고려인마을 찾는

우즈벡 노동부 장관

전남대병원 의료봉사단 초청

우즈베키스탄 아크타루 카이토프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광주 고려인 마을을 방문한다.

5일 사단법인 광주 고려인 마을에 따르면 카이토프 장관 일행은 고려인 동포 4000여명이 거주하는 광주 광산구 월곡동 고려인 마을을 찾아 정착 과정을 살펴보고 마을 지도자들과 간담회를 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 9월 28일부터 3일간 우즈베키스탄 지역에서 의료봉사를 하며 우즈베키스탄 정부로부터 환대를 받은 전남대병원 사랑 나눔봉사단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카이토프 장관 일행은 외국인력지원센터와 고려인 마을, 전남방직 등을 둘러보며 노동 환경을 살펴보고 운영현 광주시장과 만나 협력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신조아 광주 고려인마을 대표는 “이곳에 거주하는 고려인 동포 4000여명 중 80%가 우즈베키스탄 출신”이라며 “비자 발급 등과 관련해 우즈베키스탄 정부의 적극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8
해질 17:34

달출몰 19:34
달지름 08:49

다시 찾은 가을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다.

◇지역별 날씨(℃)

광주	맑음	5/18	보성	맑음	1/17
목포	맑음	7/17	순천	맑음	5/19
여수	맑음	9/18	영광	맑음	2/17
나주	맑음	1/18	진도	맑음	8/17
완도	맑음	8/18	전주	맑음	4/16
구례	맑음	0/18	군산	맑음	4/15
강진	맑음	3/19	남원	맑음	0/17
해남	맑음	2/19	축산도	맑음	10/16
장성	맑음	2/17			

◇바다 날씨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서~북서 0.5	남~남서	0.5
남부	앞바다	남~남서 0.5~1.0	남동~남	0.5~1.0
남해	앞바다	서~북서 0.5	북동~동	0.5
서부	앞바다(동)	서~북서 0.5~1.0	북동~동	0.5~1.5
남부	앞바다(서)	북서~북 0.5~1.5	북동~동	0.5~1.5

◇생활지수

	보통
	보통
	한때나쁨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8:26	03:12
	20:59	15:51
여수	03:53	10:25
	16:24	22:33

◇주간 날씨

7(화)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9/20	13/18	4/19	7/16	6/14	4/16	6/17

전남대병원장에 이삼용 성형외과 교수

전남대학교병원 제32대 병원장에 이삼용(62) 성형외과 교수가 임명됐다.

전남대병원은 “지난 9월 전남대병원 이사회에서 추천한 이 교수를 교육부가 지난 3일 차기 병원장으로 최종 임명했다”고 5일 밝혔다. 임기는 이날부터 2020년 11월 2일까지 3년이다.

이 병원장은 1982년 전남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2년 전남대 대학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남대병원 성형외과에서 전공의 과정을 거쳐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삼용 병원장은 지난 1990년 전임강사로 부임 후 미국 버지니아 주립의대 및 텍사스 MD 앤더슨 암센터와 독일 본대학 등에



서 연수했다. 이 신입 병원장은 “소통과 화합을 통해 직원들의 신뢰와 협력을 도모하고, 합리적이고 투명한 경영으로 내실 있는 병원을 이

끌어가겠다”면서 “특히 대학본부·의과대학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상호발전을 도모하고, 국내 의료발전과 지역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국립대병원이자 지역거점병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내일 벌써 입동...비 내리며 겨울 재촉

겨울의 시작을 알리는 ‘입동’(立冬)인 7일을 시작으로 8일과 10일 광주·전남에는 가끔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3mm 내외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인 7일 밤과 8일 오전, 10일 오후에는 북서쪽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겠으며, 그 밖의 날에는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1월 둘째 주(6~10일) 광주

의 기온은 최저 4~13도, 최고 16~20도 예보했다. 이는 평년 최저기온인 6.5~7도, 최고 16.2~17.9도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은 수준이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고 바람도 강하게 부는 등 주말까지 이어졌던 추위가 남해상에서 동진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6일부터 점차 풀려 평년수준인 최저 6.9도, 최고 17.6도 이내의 기온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한영기자 young@

모두가 누리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

물관리 일원화

로 시작합니다

통합물관리가 된다면 ...

- ▶ 도시 물순환 촉진으로 재해로부터 더 안전한 물환경 조성이 가능해집니다.
- ▶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생태하천 조성으로 강을 강답게 조성할 수 있습니다.
- ▶ 물 수요관리 강화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공평한 물복지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 ▶ 물산업 확대를 통한 5만2천여개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집니다.
- ▶ 유역관리에 관한 의사결정에 주민이 참여하는 유역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해집니다.